2007. 6. 18 제169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

2007. 6. 18 제169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

도시경영·경제

1. 육아 공무원 단시간 근무제 도입 (일본)
2. '단카이 세대' 재취업 지원 (도쿄)
3. 행정기구 개혁 (일본 후쿠이縣)
4. '지역사회 화합 전문기금' 운영 (북경)

디지털도시

5. 정보교환 커뮤니티 웹사이트 개설 (도쿄都 가츠시카區)

복지·문화

6. '문화 뒤집기 축제' 개최 (브라질 상파울루市)
7. 어린이 대상 '예술서적 교환 버스' 운영 (파리)
8. 도시 보물찾기 행사 개최 (런던)
9. 노인심리 상담 핫라인 개통 (북경)
10. '런던의 여름 스포츠' 행사 개최 (런던)
11. '도쿄 노숙자 백서Ⅱ' 발간 (도쿄)
12.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도쿄)

목 차

도시환경

13.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택시로 전면 교체 (뉴욕)

14. 신축 건물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 의무화 검토 (브라질 상파울루市)

15. 해변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 추진 (캘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市)

16.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해 '바이크 SF 2010' 선언 (샌프란시스코)

17. 가로수 데이터 작성 제안 (런던)

18.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저감 제창 (일본)

19. 도립공원 지정관리자 모집 (도쿄)

도시교통

20. 걷기 권장 캠페인 실시 (런던)

21. 플래시가 터지지 않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시험 운영 (런던)

22.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뉴욕)

도시계획·건설·주택

23. 미적 디자인을 고려한 도시설계 (영국)

24. 대학 주변 지역을 캠퍼스화하는 재개발 계획 (뉴욕)

25. 수도권 도시가스 운송 심층터널 완공 (도쿄)

26. 녹지 기본계획 개정업무를 민간에 위탁 (도쿄都 네리마區)

[벤치마킹 사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

<주요 내용>

○ 미국 매사추세츠州 보스턴市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요소를 창의성과 혁신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The Boston Indicators Project)를 2002년부터 시행함.

–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는 보스턴市와 보스턴의 지역커뮤니티 시민단체인 보스턴 재단(Boston Foundation), 보스턴 재개발위원회(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및 대도시계획위원회(Metropolitan Area Planning Council)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민·관 협력으로 시행한 것임.

<그림 1>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 웹사이트[1)]

– 이 프로젝트는 하버드와 MIT 등 세계적인 대학과 의학 연구소가 있는 보스턴市의 장점을 도시경쟁력화하고 생명과학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市의 혁신전략을 입안하기 위한 지표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임.

1) 각 지표 영역을 클릭하면 전체 지표가 나타나고 지표별로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원자료(raw data)와도 링크돼서 분석의 신뢰성이 높음. 지표 영역은 시민 건강성, 문화, 경제, 교육, 환경, 주택, 보건, 사회 안전, 기술, 교통으로 구분됨.

·현재 보스턴市가 당면한 문제인 높은 주택 임대료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도출의 중요한 기준 체계로서 기여하고 있음.

- 2년 단위로 성과물이 도출되는데 현재 2002년과 2004년 보고서가 있음.

·2002년 보고서 제목은 '창의성과 혁신: 미래사회로의 징검다리'(Innovation and Creativity: Bridge to the Future Society)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는 보스턴의 현재를 분석해 미래 성장기반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주요 준거로서의 역할이 큼.

- 보스턴市 탄생 40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의 계획이 포함돼 있어 도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Rankings: *Where do Boston, Metro Boston and the Commmonwealth Stand?*

Category	Index/Report	Year	Geography/Ranking
Innovation	Index of the Innovation Economy Mass. Technology Collaborative (MTC)	2004	Massachusetts is one of the Leading Technology States

MTC's *Index of the Massachusetts Innovation Economy* measures the pace of innovation, comparing seven leading technology states (LT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Massachusetts, Minnesota, New Jersey, and New York. Jobs in nine key industry clusters declined by about 4% between 2002 and 2003 in Massachusetts, the largest decline among the LTS. Massachusetts continues to attract more venture capital and federal R&D funds than all LTS except California and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e workforce. However, the state is less competitive than most LTS in housing and public higher education, and lags in population growth.

Science and Technology	State Science and Technology Index Milken Institute	2004	Massachusetts 1st among 50 states

The Milken Institute index encapsulates a comprehensive inventory of technology and science assets and provides states with benchmarks of technology progress to leverage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with five equally-weighted ind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assets; risk capital and entrepreneurial assets; human capital capacity; technology and science workforce; and technology concentration and dynamism. Massachusetts ranked first in three of these components, no lower than third in the other two, and first overall.

Overall Competitiveness	Metro Area and State Competitiveness Beacon Hill Institute	2004	Massachusetts ranks 1st, Metro Boston ranks 4th, falling from 3rd

This report combines more than three dozen measures to create a "competitiveness index" for the nation's states and largest metro areas in six areas: human resources; technology; openness to commerce, crime prevention; government and fiscal policy;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policy. Competitiveness is defined as "the policies and conditions that ensure and sustain a higher level of per capita income and its continued growth." Boston ranks 1st in technology and 4th overall, behind Seattle, San Francisco and Raleigh. Boston's lowest rankings were in government and infrastructure.

Economic Climate	Best Places For Business *Forbes Magazine*	2004	Metro Boston ranks in the top 5 for income growth, culture, and education, low in other measures

Forbes Magazine annually ranks 150 places by factors that affect the business climate. These include educational attainment, the cost of business, the cost of living, the crime rate, culture and leisure, income and job growth, and net migration. Boston ranks at the top in educational attainment, culture, crime rate, and income growth, but among the bottom in the cost of living and business and among the bottom two-thirds in job growth and net migration, based on five-year averages.

<그림 2>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의 분석 내용 일부

<해설 및 평가>

-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실제로는 도시라는 지역단위가 경쟁하면서 도시 경쟁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2] 따라서 도시 단위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도시 행정의 필수요소임.
  ·보스턴市는 이러한 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도시 경쟁력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도시 비전을 공유하는 채널을 마련했음.

- 한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당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최근 도시 경쟁력 평가 경향은 도시 인프라나 경제성과뿐 아니라 도시가 가진 총체적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 생활의 질, 사회적 참여 측면이 강조되므로 거버넌스 체제의 공공화가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소임.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는 市당국과 민간단체, 전문가 그룹이 함께 도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도시 발전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한 전략계획으로, 도시 거버넌스 심화의 좋은 사례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민선 4기 시작과 함께 창의행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전체를 혁신하기 위해 현 상태를 진단하고 도시 비전을 반영한 평가와 분석 수단이 없음.
  ·시정 성과를 진단하는 성과지표, 행정의 시민서비스 평가를 반영하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서울과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서울 서베이 등 몇 가지 지표 프로젝트가 있으나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았고 중장기 전략계획보다는 당해연도 성과나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 그침.

---

2)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 2004년 성과물의 표제는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Thinking Globally, Action Locally)임. 오늘날 지역단위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도시 경쟁력은 짧은 기간에 급상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 도시가 직면한 기회와 위기 등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서울시가 현재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추진하는 행복지수와 경제영역 지표 계획은 상호 연계성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함.
  ·서울시 전반을 평가하는 서울 서베이는 외국 도시와의 비교체제가 없어 서울의 도시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창의경영의 비전을 반영해 현재 서울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미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도시 지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학적 진단과 분석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략계획은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천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연합(UN)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도시 단위 경쟁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도시 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 지표 프로젝트 추진은 현재의 도시 경쟁력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까지 반영함으로써 현재의 도시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계획을 담보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과학적 행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시민이 도시 비전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도시 거버넌스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변미리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miree21@sdi.re.kr)

도시경영 · 경제

1. 육아 공무원 단시간 근무제 도입 (일본)

○ 일본정부는 2007년 5월 9일 국가공무원 육아휴업법과 지방공무원 육아휴업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 대한 육아 지원 대책을 수립함.

- 1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거나 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등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 진학이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 휴가를 인정해주는 '국가공무원 자기계발 휴업법'도 실시하게 됨.

(www.nikkei.co.jp/news/past/honbun.cfm?i=AT3S08024%2009052007&g=P3&d=20070509)

2. '단카이 세대' 재취업 지원 (도쿄)

○ 도쿄 취업센터에서는 '단카이(団塊) 세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생 계획 수립에서부터 재취업 노하우까지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재취업 지원 종합세미나'를 엶. 특정 전문분야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소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전문가 개발 프로그램도 운영함.

- 재취업 지원 종합세미나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진행하고, 전문가 개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55~64세를 대상으로 12일간 실시함.
  ·경제단체와 협력해 '합동취직면접회'를 열어 과정 수료자의 취업을 지원함.

* 단카이(団塊) 세대란 일본에서 1947~1949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다방면에서 강구되고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5/20h5n900.htm)

3. 행정기구 개혁 (일본 후쿠이縣)

○ 일본 후쿠이縣은 2007년 5월 17일 행정이나 정책 입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정책회의'를 설치하고, 부서 과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과제 해결 프로젝트팀'을 마련하는 등 효율성을 중시한 기구 개혁을 실시함.

- '전원지역 진흥과'와 '마을 만들기 지원과'를 통합해 '지역 만들기 지원과'를 신설하고, 증가하는 어린이·노인 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인권대책과'를 개편해 일원화하기로 함.

- '縣 교육위원회 청소년 육성과'와 '생활 안전과'를 통합해 안전환경부에 '縣民 안전과'를 신설하고 지역 치안에 힘쓰기로 함. 縣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정책과'를 신설해 교육정책의 기획 및 입안을 총괄하도록 함.

○ 한편, 1047명의 인사이동도 있었는데, 여직원을 관리직 간부로 등용해 과장급 이상 여직원이 처음으로 19명이 됐다고 발표함.

(headlines.yahoo.co.jp/hl?a=20070512-00000144-mailo-l18)

4. '지역사회 화합 전문기금' 운영 (북경)

○ 북경市에서는 '지역 간 축구대회'나 '이웃의 날'처럼 주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역문화 활동에 관한 제안이 있으면 누구나 '지역사회 화합 전문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지역사회 화합 전문기금은 북경 문화발전기금회가 설립하고 중국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100만 위안(약 1억 2000만 원)을 기증해 곧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공익성 기금으로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대비해 지역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북경 문화발전기금회는 그동안 북경市 100여 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와 이웃사랑을 장려하는 사회활동을 계획했지만 자금이 가장 큰 문제였음. 이번 기금 설립을 계기로 지역특색이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www.bjd.com.cn/bjxw/bjsq/cgld/200705/t20070511_276151.htm)

(북경일보, 2007. 5. 11)

디 지 털 도 시

5. 정보교환 커뮤니티 웹사이트 개설 (도쿄都 가츠시카區)

○ 도쿄都 가츠시카區는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와 제휴해 2007년 6월 1일 지역 주민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인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를 개설함.

-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SNS로는 도쿄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공개한 다음, 의견이나 관심 있는 정보를 게시하고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임.
  ·2007년 5월 초부터 가등록 서비스를 시작해 지역 축제, 음식 정보 등을 테마로 한 커뮤니티 22개가 개설됨.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인을 헐뜯거나 협박하는 답변은 달 수 없음.

- 都는 SNS를 통해 새로운 지역 간 제휴와 지역 활성화를 기대함.

(요미우리신문, 2007. 5. 27)

>>> 전문가 검토의견

- UCC나 블로그와 함께 가장 주목 받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사이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임.
  ·한국의 싸이월드, 미국의 MySpace, 일본의 Mixi 등이 대표적이며, 양방향 의사소통 및 인맥 구축과 정보교류의 핵심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PC 통신 시절의 동호회나 다음(Daum) 카페, 프리챌 커뮤니티, 아이러브스쿨 등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됨.

- SNS는 공통의 취미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도쿄都 가츠시카區의 경우처럼 지역문화 개발에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SNS가 가치기반의 지식 추구형이라기보다는 흥미나 재미 위주로 이용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새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대부분 오프라인의 친구 관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므로 사회적 여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서울시의 경우 서울사랑 커뮤니티라는 웹동호회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 정보 포털사이트에 시민 참여로 이뤄지는 콘텐츠(UCC)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시민 간의 지역정보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한줄 뉴스

<도쿄>

-신주쿠區, 60년사를 주제로 휴대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신주쿠 이야기」 발간
·행정기록 위주로 작성했던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사진을 많이 사용하고 컬러로 제작

-국제교류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을 늘릴 목적으로 '도쿄都 방일 교육여행 촉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외국 학생의 교육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전개

복 지 · 문 화

6. '문화 뒤집기 축제' 개최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에서는 2007년 5월 5~6일 계절이 뒤바뀌는 시기에 열린다는 의미에서 명명된 '문화 뒤집기 축제'(Virada Cultural)가 열렸음.

- 2007년 5월 5일 오후 6시부터 6일 저녁 7시 30분까지 상파울루市 주요 공연장 및 광장, 교육센터 등 80곳에서 뮤지컬, 연극, 서커스, 마임, 영화, 댄스, 문학, 록 공연 등 350여 개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짐.

- 문화 뒤집기 축제는 브라질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로, 브라질 정부와 상파울루市가 남미 최대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08년에는 4월 26~27일에 개최될 예정임.

(diversao.terra.com.br/interna/0,,OI1598967-EI3615,00.html)

7. 어린이 대상 '예술서적 교환 버스' 운영 (파리)

○ 2007년 5월 파리 시내 주요 5개 도서관에서 열린 '5월 예술서적의 달' 행사에서 5~12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술서적 교환 버스'를 운영함.

- 파리시내 46번 버스가 주요 5개 도서관을 연결해 무료로 운행함.
  ·버스에는 책과 장난감 등이 진열돼 있음. 부모와 함께 탄 어린이는 '도시와 여행'을 주제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했으며 이미 읽은 예술 관련 책을 서로 교환하기도 함.

(www.paris.fr)

8. 도시 보물찾기 행사 개최 (런던)

○ 런던 교통공사와 서더크 구청(London Borough of Southwark)은 공동으로 2007년 5월 연휴기간에 가족이 참여하는 도시 보물찾기 행사를 개최함.

- 연휴기간 주말 런던 브리지 근처 관광명소인 버러 시장에 모인 참가자에게 인근 명소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지도와 안내문 등을 배부함.

- 7세 이상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으며, 7세 미만 아동도 명소를 관찰하고 청각과 후각 등을 이용해 지리와 문화시설을 익힐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배포함.

- 참가자 전원에게 보물찾기 세트가 든 가방을 무료로 제공하고 행사 종료시점인 오후 4시까지 돌아온 참가자에게만 보물찾기 선물을 줌.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5189.aspx)

9. 노인심리 상담 핫라인 개통 (북경)

○ 2007년 4월 28일 '북경市 노인심리 상담 핫라인'이 정식 개통돼 '96156'을 누르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북경市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4%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자기비하, 무력감, 불안감 등 심리불안 증상이나 급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임.

- 북경市가 실시하는 심리상담 전화서비스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북경市는 기대함.

(www.bjd.com.cn/bjxw/bjsq/cgld/200704/t20070429_270812.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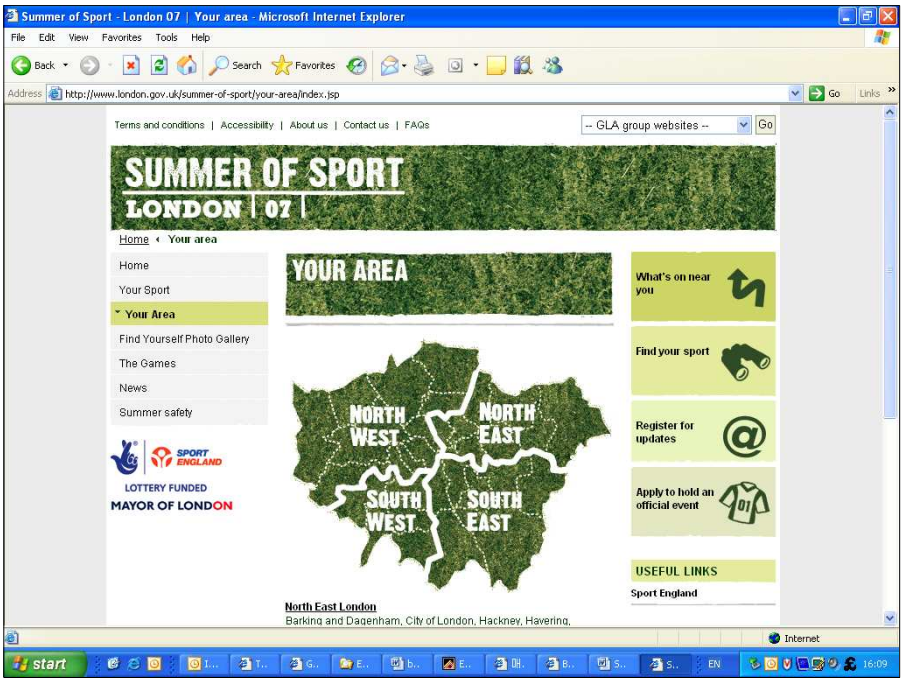
10. ‘런던의 여름 스포츠’ 행사 개최 (런던)

○ 런던市는 연중 가장 쾌적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 스포츠 프로그램인 ‘런던의 여름 스포츠’(The London Summer of Sport) 행사를 개최함.

– 시민이 좀더 스포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체육 분야와 2012년 올림픽 이후에도 런던을 대표하는 스포츠 인재를 길러내는 영재체육 분야를 함께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음.

·사회체육 분야로는 요가, 축구, 등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Synchronized Swimming) 등 모든 연령대가 체력 조건에 맞춰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영재체육 분야로는 수영 세계기록에 도전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2007 런던의 여름 스포츠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스포츠 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를 검색할 수 있음.

(www.london.gov.uk/summer-of-sport)

11. ‘도쿄 노숙자 백서Ⅱ’ 발간 (도쿄)

○ 도쿄都는 노숙자 자립 지원을 위해 ‘도쿄 노숙자 백서Ⅱ’를 발간함.

- 都가 7년 간 노숙자 대책을 실시한 결과 노숙자가 약 2120명(38.4%) 감소함.
  ·都가 설립한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700명이 취업에 성공해 자립함.
  ·都와 각 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생활 이행 지원사업’을 통해 3년 간 1541명이 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김.

- 노숙자 수는 감소했지만 자립이 어려운 노숙자 비율은 늘어난 실정이라 지속적인 노숙자 자립 지원이 필요함.
  ·노숙자 평균 연령은 58.9세고, 노숙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45.8%로 장기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취직 의사가 있는 사람은 34.4%로 2006년에 45.1%인 것에 비해 감소함.

- 都는 백서를 토대로 취업 지원과 주택 대책, 재정지원 강화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CHOUSA/2007/05/60h5o300.htm)

한줄 뉴스

- 뉴욕市, 2007년 5월 한 달간 ‘제16회 자전거의 달’ 행사 개최
  ·출근시간대에 일정 구간을 자전거와 택시, 지하철이 경주하는 행사에서 자전거가 승리

- 샌프란시스코市, **도시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07 중소기업박람회’ 개최
  ·참여기업은 사업계약 기회와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할 기회 얻어

- 파리市 변호사 연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버스**를 운행하며 거리에서 시민 상담

12.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도쿄)

○ 도쿄都는 2007년 6월 1일 마치다市에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시설인 '잡 트레이니 칼리지'(Job Trainee College)를 개설하고, 장애인 20명을 모집해 최장 2년 간 기술 향상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임.

- 일반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수시로 모집함.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근거해 칼리지 이용료의 10%는 본인 부담임.

- 2006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서는 새로운 장애복지서비스로 취업 지원사업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에게 문호를 엶.

- 잡 트레이니 칼리지는 치요다區에 있는 인재파견회사인 스태프 서비스 홀딩스가 100% 출자해 운영하는데,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근거한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임.
  ·스태프 서비스 홀딩스는 2000년 이후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근거해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는 특례 자회사 2개를 마치다 시내와 가나가와縣 사가미하라市에 설립하고, 투석 치료가 필요한 신장기능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체부자유인, 정신지체인, 청각·시각장애인 등 335명을 고용하고 있음.

(www.staffservice.co.jp/nr/nr_070525_01.html)
(www.tokyo-np.co.jp/article/tokyo/20070528/CK2007052802019624.html)

한줄 뉴스

-일본 총무성, 2007년 5월부터 **IT(정보기술)를 활용해 재택근무**를 하는 '텔레워크' 전면 도입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이며 대상 직원은 자택에서 전용 PC로 업무 수행

13.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택시로 전면 교체 (뉴욕)

○ 뉴욕시장은 향후 10년 안에 택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50%까지 줄인다는 계획 아래 뉴욕市의 장기 정책인 '플랜뉴욕'(PlaNYC)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시내 모든 택시를 하이브리드 택시로 교체한다고 발표함.

-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도 뉴욕市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택시 10대를 기증하기로 약속함.

- 하이브리드 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택시기사도 연간 연료비를 1만 달러(약 93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음.
  ·현재 운행 중인 1만 3000여 대의 택시가 하이브리드 택시로 교체되면 3만 2000대의 차가 도로에서 사라진 만큼의 배기가스 저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10월까지 하이브리드 택시 1000대를 도입하기 시작해 2010년까지 7000여 대를 도입하고, 2012년 10월까지 모든 택시를 하이브리드 택시로 바꿀 방침임.

(www.nytimes.com/2007/05/23/nyregion/23taxi.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대기환경 개선 측면에서 자동차의 대체연료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기를 사용해 저속으로 운행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임.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성능이 기술적으로 많이 개선돼 동력 및 속도가 기존의 연료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뉴욕市의 택시 하이브리드화 계획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나, 택시는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택시 연비를 기술적으로 높이거나 연료 충전 등을 위한 주유소 정비 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임.

- 우리나라 택시 연료는 가솔린이나 경유가 아닌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대기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지는 않으므로 당장은 택시 하이브리드화 계획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는 할 수 없음.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LPG와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화가 추진된다면 저속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환경 개선에 좀더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이우승 도시교통부 연구위원(wooseung@sdi.re.kr)

한줄 뉴스

<브라질 쿠리치바市>
-흡연자에게 금연스티커와 금연껌을 무료로 배부하는 금연 캠페인 벌여

-빈민층에게 의류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5~8월 **'사랑의 기부 패션쇼'** 개최

-2007년 5월 26~27일 **바이오 도시를 주제로 강연** 실시
·이론 강의뿐 아니라 식물을 직접 관찰하는 수업도 진행

14. 신축 건물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 의무화 검토 (브라질 상파울루市)

○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계획안을 상파울루市 의회에서 검토 중임.

- 호텔, 모텔, 헬스클럽, 병원, 학교, 미용실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비주거 건물과 생산과정에서 온수가 필요한 건물, 직원 탈의실이 설치된 건물 등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물에는 화장실이 3개 이상인 아파트나 주택 등이 해당됨.

- 온수를 사용하는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신축이 아니더라도 태양열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임.

(noticias.terra.com.br/brasil/interna/0,,OI1601869-EI8139,00.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상파울루市의 태양에너지 이용 의무화 계획은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건물이나 인공 구조물로 형성된 그림자에 따라 효율 저하가 우려되고, 기존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북측에는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건물에서의 에너지 이용 특성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아직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면적이 3000㎡ 이상인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서울시는 설비 투자뿐 아니라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서울시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은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건물에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5. 해변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 추진 (캘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市)

○ 캘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市 '공원 및 지역 커뮤니티 시설위원회'는 산타모니카 해변 공용주차장 중 이용률이 낮은 주차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

-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녹지공간과 놀이시설을 설치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市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음.

-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후에도 해변에 사람이 많이 오는 여름 주말에는 일부 지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논의함.

- 市는 수지관리위원회 이사회에서 약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필요한 비용은 2006년에 조성한 市 홍수재난 대비 자금을 활용할 계획임.

- 이 계획은 미국 노동절인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시작해 2007년 말까지 완성할 예정임.

(www.smmirror.com/MainPages/DisplayArticleDetails.asp?eid=5480)

16.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해 '바이크 SF 2010' 선언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2007년 5월 17일 시민의 자전거 이용 촉진과 이를 통한 건강 증진, 대기오염 감소 등을 목적으로 '바이크 SF 2010'(Bike SF 2010)을 선언함.

- 현재 통근이나 통학 교통수단 가운데 자전거가 5% 정도를 차지하는데 2010년까지 자전거 비중이 적어도 10% 정도 되도록 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을 50%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008년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 자전거 계획’을 만들어 시내 50여 곳에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2010년까지 자전거 보관소 300곳과 자전거 전용도로 20개를 만들 계획임.

(sfgov.org/site/mayor_page.asp?id=60651)

한줄 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주거국, **저소득층을 위해 340채 신규 임대주택 건설** 추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프로그램 실시 중

17. 가로수 데이터 작성 제안 (런던)

○ 런던시의회는 지난 5년 동안 가로수 2000그루가 베여 사라져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의 한 자치구는 가로수의 40%를 안전상의 이유로 제거했다고 했지만 이중 1%만 정당한 것으로 드러남.

- 런던시의회는 자치구와 市 차원에서 가로수 데이터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잎이 넓은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함. 가로수 제거는 치밀한 조사 후 결정해야 하고, ‘런던 가로수 보존 가이드’(London Tree Survival Guide)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2091)

18.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저감 제창 (일본)

○ 일본 아베 총리는 2007년 5월 24일 제13회 국제교류회의인 '아시아의 미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전 세계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 줄이자고 주장함.

- 교토의정서를 대신한 새로운 국제 종합전략인 '아름다운 별 50'에는 이산화탄소를 1명당 1일 1kg 줄이자는 일본 국민운동도 포함함.

- 아베 총리는 전략 발표에 앞서 미국 대통령과 영국 및 독일 총리에게 전화로 전략을 설명함. 회의장에서 직접 연설을 들은 필리핀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총리는 찬성의 뜻을 표함.

- 아베 총리는 2007년 6월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협력을 호소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www.nikkei.co.jp/news/past/honbun.cfm?i=NTE2INK15%2024052007&g=MH&d=20070525)

19. 도립공원 지정관리자 모집 (도쿄)

○ 도쿄都는 민간 사업자나 비영리단체 등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6년 4월부터 68개 도립공원에 대해 지정관리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만간 도립공원 3곳을 추가하기로 함.

- 공개모집하는 지정관리자는 건설국 공원녹지부의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자를 심사해 결정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都와 지정관리자 간에 협정을 체결해 2008년 4월부터 관리운영 업무를 맡을 예정임.

- 都는 도쿄문화회관과 에도도쿄박물관 등 도립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리운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감.

(www.metro.tokyo.jp/INET/BOSHU/2007/05/22h5o5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5/20h5s200.htm)

도 시 교 통

20. 걷기 권장 캠페인 실시 (런던)

○ 런던 교통공사는 'Why not walk it'이라는 표어 아래 라디오 광고와 포스터를 제작해 걷기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유명 배우가 참여한 라디오 광고는 캐피털 라디오, 매직 105.4, 스무드 FM 등 3개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 방송시간대에 나가고 있으며, 포스터도 예술가가 직접 제작함.

- 교통공사는 통근 거리가 짧은 직장인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주요 타깃으로 해 건강과 도시 환경을 함께 살린다는 것을 강조함.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5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차량으로 가는 경우가 런던 외곽지역 차량 운행의 절반을 차지함.

- 향후 3년 동안 런던이 걷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교통공사 예산 1억 2000만 파운드(약 2322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어서 건널목 신설, 신호등 개선, 지역별 도보여행 지도 제작, 교육 사업 시행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4939.aspx)

한줄 뉴스

<영국>
- 런던市, 5월 마지막 주를 **'런던 재활용 주간'**으로 정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 자선기관 안내서비스 제공

- 영국 유대인문화협회, **유대인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런던 유대인 가이드라인' 작성
  ·유대문화 관련 음악, 이벤트, 공연, 전시회 등 상세히 소개

- 영국 스포츠협회, **도시계획과 스포츠 활동을 연계**한 '활동적인 디자인 지침서' 작성
  ·도시계획가와 디자이너, 건축가가 개발과정에서 이용자가 좀더 물리적으로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과 시설물 디자인을 하도록 제시

21. 플래시가 터지지 않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시험 운영 (런던)

○ 플래시와 필름 없이도 속도위반 차량을 기록할 수 있는 첨단카메라인 디캠(d-cam)이 런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음. 런던市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설치를 확대할 예정임.

- 런던 교통공사는 2007년 4월부터 A4 도로에서 기기 테스트를 마치고 시내 운행구간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힘.

- 市는 속도위반 감시카메라가 저속구간(시속 20km) 지정과 함께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므로 신기술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안전 시민단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속도위반 여부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도로교통 안전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범칙금 부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비판함.

디캠(d-cam)의 모습

(news.bbc.co.uk/1/hi/england/london/6691895.stm)

한줄 뉴스

<북경>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성區 예탄 지역 보건센터 간호사들이 **무자녀 노인 300여 명을 찾아가 건강검진** 실시

-市 도시행정집행국, 공무원이 대민 업무 중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나 표현을 모아 사례집을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사례 공모

·사례집을 만든 후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게는 벌칙 부과

22.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뉴욕)

○ 2007년 5월 24일 미국 코네티컷州에 있는 퀴니피악 대학(Quinnipiac University)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맨해튼에 거주하는 뉴욕시민은 뉴욕市 다른 4개 자치구인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버러(borough) 주민보다 혼잡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 참가한 뉴욕시민은 현 뉴욕市 교통문제에 대해 59%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31%는 약간 심각하게 생각함. 하지만 맨해튼 86가 아래로 진입 시 8달러(약 7500원)의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서는 37%가 찬성하고 5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한 자치구별 찬성-반대율은 브롱스(26%-67%), 브루클린(29%-63%), 퀸스(32%-61%), 스태튼 아일랜드(26%-69%)로 반대율이 높음. 하지만 인구가 뉴욕市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맨해튼 주민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 찬성 62%, 반대 29%로 전체 뉴욕市 결과와 상반됐음.

- 이 조사는 2007년 5월 15일부터 21일에 걸쳐 뉴욕市에 등록된 선거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1% 오차율이 있음.

·설문조사 대상자 중 68%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자의 53%는 혼잡통행료 부과에 반대함. 자동차 이용자의 경우는 59%가 혼잡통행료 부과에 반대함.

·혼잡통행료 부과는 맨해튼 외 4개 자치구에는 불공평한 적용이라는 의견이 59%임.

·혼잡통행료 부과 면제 차량으로 택시(56%)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리무진의 경우 '면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70%임.

(뉴욕타임스, 2007. 5. 24)

(empirezone.blogs.nytimes.com/2007/05/24/manhattan-vs-the-other-boroughs)

(www.quinnipiac.edu/x1302.xml?ReleaseID=1066)

23. 미적 디자인을 고려한 도시설계 (영국)

○ 영국정부 자문기구인 '건축 및 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안전대비가 지나칠 경우 획일적인 도시설계를 조장해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보고서(Living with Risk)를 발간함.

- 보고서는, 창조적이고 지적인 도로 및 공공시설 설계안이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 요소를 100% 제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관리 가능한 위험 요소와 미적인 디자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공공 공간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보다는 일상적인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도시 설계가 이뤄져야 함.
  ·영국 내 10개 공공시설과 16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을 이유로 세련된 디자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실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미적인 도시설계가 가지는 다양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소극적인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안전과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통합해 고려하고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힘.

(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1932)

>>> 전문가 검토의견

- 안전에 관한 경직된 기준으로 다양한 도시공간 도입이 어려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위험 요소에 과도하게 민감한 것에 대한 주의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설계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영국 '건축 및 환경위원회'(CABE)의 Sarah Gaventa는"위험하거나 불안정한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장벽에 지배되는 공공공간을 피하자."라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힌 바 있음.

- 좋은 디자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적 가치 제고와 기능적 효용성, 안전을 두루 갖춰야 함.

/박현찬 도시계획부 연구위원(hcbahk@sdi.re.kr)

한줄 뉴스

<북경>
-市 심리위생협회와 동인병원 심리전문가 10명이 **시내 100여 곳을 방문해 시민 대상 정신상담** 실시

-시민의 문화 함양과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 과학, 문화생활 관련 강의를 실시하는 '북경 주말 지역 대강당'프로그램 진행
·2007년 5월 한 달간 36회 강좌를 진행해 시민의 호응을 얻었고, 6월에도 '북경의 식탁문화와 예절' 등 49회 강좌 진행

24. 대학 주변 지역을 캠퍼스화하는 재개발 계획 (뉴욕)

○ 뉴욕市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은 학교시설물이 계속 확충됨에 따라 학교 주변 웨스트 할렘 지역을 캠퍼스화하는 계획인 '맨해튼빌'(Manhattanville)을 추진하고 있음.

- 계획에 따르면, 옛 공업지역인 웨스트 할렘 지역 중 12번 애비뉴(12th Avenue)를 중심으로 브로드웨이 129가와 133가 사이의 17에이커(약 6만 9000㎡) 지역을 향후 20년 간 콜롬비아대 캠퍼스 강의동, 문화시설, 상업시설로 재개발할 예정임.

- 콜롬비아 대학은 재개발을 통해 현재 낙후된 웨스트 할렘 지역이 교육 및 연구 중심 지역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상업 및 문화시설로 활기 넘치는 보행자 중심 거리로 탈바꿈하고, 현재 공사 중인 뉴 허드슨 강 공원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맨해튼빌 개발계획은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의 일종으로 수천 개의 대학 관련 직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웨스트 할렘 지역의 저소득층 거주공간이 사라지고 기존 할렘 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로 인해 개발계획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전 뉴욕시장인 콜롬비아 대학 공공정책대학원 데이비드 딘킨스 교수는 2007년 5월 27일 뉴욕타임스에 'Don't Fear Columbia'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맨해튼빌 계획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
  ·콜롬비아 대학은 뉴욕시민을 위해 문화, 교양,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미 많은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콜롬비아 대학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고, 맨해튼빌 계획이 진행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개발계획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

- '뉴욕 선' 2007년 5월 24일자에서는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로비자금으로만 현재 40만 달러(약 3억 6000만 원)가 사용됐다고 공개함.

(www.nytimes.com/2007/05/27/opinion/27CIdinkins.html?_r=1)
(www.columbia.edu/cu/neighbors/pages/manplanning/index.html)
(www.nysun.com/article/55153)

25. 수도권 도시가스 운송 심층터널 완공 (도쿄)

○ 일본 수도권의 도시가스를 운송할 지하 심층터널이 완공됨에 따라 터널 내에 강철 가스관을 설치해 2009년부터 가스를 운송할 계획임.

- 터널은 지하 40m에서 50m 사이를 실드(shield) 공법으로 굴착해 에도가와區에서 사이타마縣 소카市까지 약 23km를 관통함.
  ·도로나 철도 터널과 달리 지름이 2.7m로 작아 내부에 기계를 설치하기 곤란했으나, 2003년부터 실드 머신 5대로 굴착을 시작해 169억 엔(약 1304억 원)을 들여 완공했음.

- 이번에 완공된 터널을 통해 도쿄 도심 중앙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연결해 가스의 안정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수도권의 가스 간선은 도쿄 도심을 가나가와縣, 도쿄都의 다마 지구, 사이타마縣, 치바縣을 둘러싸듯이 연결해, 도쿄만에 있는 가스공장에서 내륙부로 가스를 운송하고 있음.

(www.tokyo-np.co.jp/article/tokyo/20070525/CK2007052502018810.html)

26. 녹지 기본계획 개정업무를 민간에 위탁 (도쿄都 네리마區)

○ 도쿄都 네리마區는 녹지 기본계획 개정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기로 하고 모집 공고를 냄. 풍부한 지식과 경험, 응용력을 가진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업체 선정방식으로 제안(Proposal) 방식을 택함.

- 위탁 내용은 녹지 기본계획 개정업무 보조와 운영업무 보조 등임.
  ·2006년도에 실시한 녹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거나 최근 동향에 맞춰 새로운 시책 등을 보완하며, 녹지 중점지구를 재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조정 및 개정 검토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게 됨.

(www.city.nerima.tokyo.jp/topics/topics.php?id=898)